생일맞은 코리안 보이 광속질주에 세계가 '깜짝'

모태범 500m 세계랭킹 14위서 밴쿠버 혜성으로… 이강석 0.03초차 동메달 놓쳐

모태범이 16일(한국시간) 밴쿠버 리치몬드 올림픽 오벌 경기장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m 2차 시기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깜짝' 금메달이었다.

1,000m와 1,500m가 주력 종목인 모태범은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500m 세계랭킹에서 14위에 머무르며 '메달 후보'에도 조차 들지 못했다.

그러나 밴쿠버 입성 직전 캘거리에서 치른 최종 전지훈련 때부터 페이스를 잔뜩 끌어올린 모태범은 실전에서 이강석과 이규혁에 맞춰진 포커스를 한순간에 되돌렸다.

모태범은 1차 시기에서 총 20조 가운데 13조에서 월드컵 랭킹 9위의 강호 얀 스미켄스(네덜란드)와 함께 경기를 펼쳤다. 출발신호와 함께 달려나간 모태범은 네덜란드 관중의 일방적 응원을 극복하면서 초반 100m를 9초63에 주파했고, 나머지 구간에서 역주를 펼쳐 34초92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모태범의 기록은 앞서 경주를 펼친 23명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이었다. 순간 관중석에선 '낯선 선수'의 '깜짝' 기록에 큰 환호를 보냈다. 모태범은 18조에서 경기를 치른 핀란드의 미카 포탈라(34초86)에 선두를 내줬지만 여전히 메달 가능성을 품은 채 2차 시기를 준비했다.

정빙기 고장으로 경기가 1시간 30분 가량 지연되는 악조건 속에 2차 시기에 나선 모태범은 19조에서 개최국 캐나다의 간판이자 세계기록(34초03) 보유자인 제레미 워더스푼과 같은 조에서 힘든 경기를 펼쳐야 했다.

워더스푼을 연호하는 캐나다 홈팬들의 함성 속에 아웃 코스에서 스타트 자세를 잡은 모태범은 출발 총성과 함께 반사적으로 튀어나갔고, 초반 100m에서 9초61을 찍으면서 워더스푼(9초69)을 제쳤다.

마지막 100m를 남기고 워더스푼과 거리를 벌린 모태범은 34초90로 결승선을 통과, 1, 2차 시기 합계 69초82로 중간 순위 1위로 올라섰다. 동메달을 확보한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1개조. 1차 시기 1위였던 미카와 가토가 맞붙었고, 이들이 나란히 1, 2차 시기 합계 70초04와 70초01에 머물면서 극적으로 모태범이 금메달의 주인공으로 확정됐다.

모태범은 "그동안 언론에서 무관심했던 게 오히려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며 "사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내가 나한테 생애 최고의 생일 선물을 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강석(의정부시청)은 1, 2차 시기 합계 70초04를 기록, 3위를 차지한 가토에게 0.03초 차로 아쉽게 동메달을 내주고 말았다.

또 맏형 이규혁(서울시청)은 70초48로 15위, 문준(성남시청)은 71초19로 19위에 만족해야 했다. /연합뉴스

■ 모태범 일문일답

"무관심이 오히려 큰 도움됐어요 금메달은 내 생애 최고 생일 선물"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사상 동계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모태범은 역사에 길이 남을 금자탑을 세웠지만 젊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유있고 배짱있는 모습이었다.

쟁쟁한 선배들도 올림픽 무대에서는 지나친 긴장으로 메달을 놓치기 일쑤였지만 모태범은 16일(한국시간) 캐나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기적같은 1위를 차지한 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네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선 "그동안 (기자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그게 오히려 부담없이 탈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패기있는 여유를 보였다.

다음은 모태범과 일문 일답.

-올림픽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소감은.

▲사실 오늘이 내 생일이다. 하지만 부모님도 누나도 아무도 올림픽에 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 혼자다. 내가 나한테 생애 최고의 생일 선물을 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

-1,000m가 주종목인데 5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원동력은.

▲1,000m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500m 구간 훈련을 아주 열심히 했다. 그게 생각지도 못한 금메달을 가져다준 것 같다.

-1차 레이스에서 정빙기가 고장나 1시간 30분이나 대기했는데 부담이 없었나?

▲감독님이 연기되는 상황을 계속 일러줬다. 적당히 몸을 풀고 쉬다가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있었더니 큰 문제는 없었다.

-1차 레이스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는데 예상했나.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다. 1차에서 성적이 잘 나오니 2차에서 한번 해보자는 자신감도 생겼다.

-2차는 캐나다의 간판인 제레미 워드스푼과 레이스를 펼쳤는데 부담이 없었나.

▲100m 구간만 먼저 빠져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100m를 먼저 치고 나가면서 자신감이 더욱 붙었다.

-아무도 금메달 후보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

▲태릉에서 미디어데이할 때에 나한텐 질문도 하지 않았죠(웃음).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오기가 생겼다. 언론에서 무관심했던 게 오히려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연합뉴스

평창 2018년엔 꼭!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 본격 시동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지난 해 10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강원도 평창과 독일 뮌헨, 프랑스 안시는 16일(한국시간) 오전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밴쿠버 시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차례로 공식 기자회견을 신청하고 도시 홍보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김진선·조양호 공동위원장과 박용성 대한체육회(KOC) 회장,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김소희가 참석해 평창의 장점과 유치 열망을 전달한 뒤 질의응답 형태로 이어졌다.

앞서 두 번의 유치 과정과 달라진 점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나선 김진선 강원지사는 "이번 유치과정에서는 좀 더 진전된 평창, 새로운 평창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뒤 "한국은 두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유치 찬성률이 92%에 이를 만큼 전국민이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동계올림픽 '3수'에 나선 평창은 이미 지난 13일 밴쿠버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 대한체육회와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을 갖고 20여명의 IOC 위원들을 초청했다. /연합뉴스

7살 때 취미로 스케이트 타기 시작

■ 모태범은 누구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기대주에서 최고선수로 우뚝 서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모태범을 금메달 후보로 꼽았던 이는 거의 없었다.

모태범은 그동안 이규혁과 이강석 등에 가려져 크게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미래를 이끌 기대주로 꼽히는 선수다.

7살 때 취미로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한 모태범은 주니어 시절부터 꾸준히 실력을 다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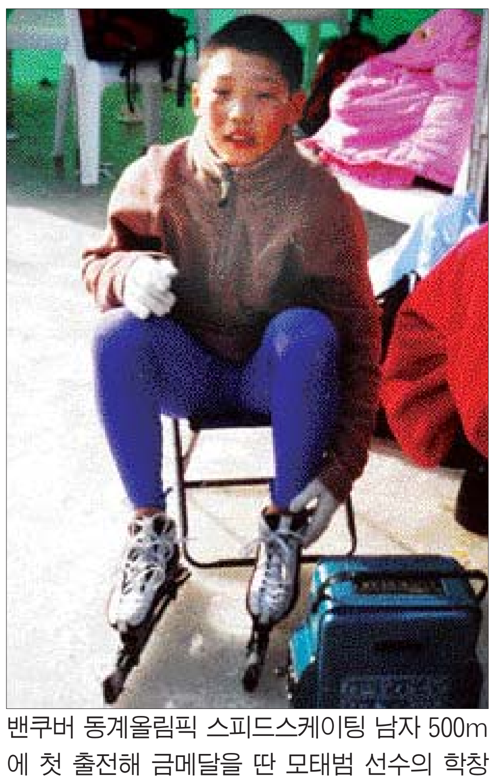
2006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500m 1위, 1,500m 2위, 3,000m 3위에 오르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린 모태범은 이듬해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도 500m 금메달을 차지하며 단거리 종목의 새 강자로 떠올랐다.

2008년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월드컵 대회에 출전한 모태범은 그해 12월 월드컵 5차 대회 1,000m 2차 레이스에서 5위에 오르며 시니어 무대에도 적응을 마쳤다.

모태범은 이어 2009년 1월 아시아 종목별선수권대회에서도 500m 1위, 1,000m와 1,500m에서 2위에 오르며 기세를 이어갔다.

그해 11월 시작한 2009-2010 시즌 4번의 월드컵 시리즈에서 모태범은 2차 대회 1,000m 3위, 5차 대회 1,000m 4위를 차지하며 세계 정상을 넘보기 시작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5차 대회 1,500m에서는 1분42초85로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여전히 이규혁과 이강석에 스포트라이트가 쏠린 사이 묵묵히 훈련에 열중한 모태범은 선배들을 대신해 생애 첫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오랜 한을 풀었다. /연합뉴스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 첫 출전해 금메달을 딴 모태범 선수의 학창시절 모습. /연합뉴스

■ 한국선수단 내일의 경기 일정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천m 결선(이규혁·문준·이기호·이강석·모태범)-오전 9시

◇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선, 남자 1천m 예선, 남자 5천m 계주예선-이상 오전 10시~12시15분

◇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김호준)-오전 6시5분